

① 学問成就・合格祈願の山

白樂天山は、唐の詩人・白樂天が、老松の上に住む道林禪師を訪ねる場面を表しています。白樂天は、白地の衣装に唐冠をかぶり、「しゃく」を両手に持ち、道林禪師の答えを承る姿勢で立っています。また道林禪師は、紫衣と藍色の帽子を着け、手には数珠と払子を持ち、松の皮の上に腰かけています。白樂天から仏法の大意を問われた道林禪師が「悪いことをせず良いことをすること」と答えると、白樂天は「そんなことは子供でも知っている」と言います。道林禪師は、「その通りである。しかし八十歳の翁でも行い難いことではないか」と説かれ、白樂天は感服します。白樂天の求道心と悟りにあやかり、学問成就の御利益があるとされる山です。

① 학문성취·합격기원의 산

하쿠라쿠텐야마(白樂天山)는 당나라의 시인·백락천이 늙은 소나무 위에 사는 도림선사를 방문한 장면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백락천은 흰 옷에 당관을 쓰고 「홀(笏)¹」을 양손에 들고 도림선사의 대답을 듣는 자세로 서 있습니다. 또한 도림선사는 보랏빛의 승복을 입고 모자를 쓴 채로 손에는 염주와 불자를 들고 소나무 껍질 위에 앉아 있습니다. 백락천이 도림선사에게 불법의 대의가 무엇인지 질문하자, 도림선사는 「나쁜 일을 하지 않고 좋은 일을 하는 것」이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백락천은 「그런 것은 어린아이라도 알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도림선사는 「네 말이 맞다. 하지만 팔십세 영감이라도 실천하기 어려운 일이 아닌가」라고 말하여 백락천은 큰 감동을 받습니다. 하쿠라쿠텐야마는 백락천의 구도심²과 깨달음에 덕을 입어 학문성취의 공덕이 있다고 여겨지는 산입니다.



¹ 홀(笏): 관위에 있는 자가 관복을 하였을 때 손에 가지는 수판

² 구도심(求道心): 도를 구하는 마음

② 세계에서 가장 오래 이어지고 있는 축제, 바로 기온마츠리
 祇園祭は八坂神社の神様・素戔鳴尊が家族とともに三基の神輿に乗って、年に一回、氏子の街に渡御されるお祭りです。世界で一番長く、100年以上続いています。祇園祭は八坂神社が行う神事「神輿渡御」と下京の町衆が行う「山鉾巡行」の二つの行事があります。7月1日の各山鉾町の切符入りに始まり、17日の前祭の巡行で神様をお迎えし、24日の後祭で神様をお送りします。前祭と後祭の前日三日間には宵山があり、各山鉾の提灯に明かりが灯り、祇園囃子が流れます。31日に疫神社(八坂神社内)にて夏越祭が行われ、祇園祭は終了します。

② 세계에서 가장 오래 이어지고 있는 축제, 바로 기온마츠리
 기온마츠리는 야사카신사의 신·스사노오노미코토³가 가족과 함께 3기의 미코시⁴를 타고 1년에 한 번, 우지코⁵의 마을에 행차하는 축제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축제로, 1100년 이상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온마츠리는 야사카신사가 행하는 신사(神事)⁶「미코시도쿄⁷」와 시모교(下京)마을 사람들이 행하는 「야마보코⁸순행」, 두가지의 행사가 있습니다. 7월 1일 각 야마보코마을의 킷푸이리(切符入り)⁹에서 시작하여, 17일 전제(前祭) 순행에서 신을 맞이하고 24일 후제(後祭)에서 신을 보냅니다. 전제와 후제의 3일전에는 요이야마(전야제)가 있고, 각 야마보코의 제등에 불을 붙이고 기온바야시(囃子)¹⁰가 흘러나옵니다. 31일에 에키신사(야사카신사 내)에서 나고시노마츠리¹¹가 열리고, 기온마츠리는 끝납니다.

³ 스사노오노미코토 (素戔鳴尊) : 기기신화에서 이즈모계 신의 계통이라고 여겨지는 신
⁴ 미코시(神輿) : 신령을 안치하는 가마. 제례 등에서 짙어진다.
⁵ 우지코 ...그 고장의 수호신이 지키는 토지에 살며 그 신을 모시는 사람들
⁶ 신사(神事): 신을 제사지내는 의식
⁷ 도쿄(渡御):미코시가 나아가는 것
⁸ 야마보코 : 대(臺) 위에 산모양을 만들고 창이나 칼을 꽂은 화려한 수레
⁹ 킷푸이리 (切符入り) : 신사(神事)의 첫째 날로 관계자가 회장에 모여 축제가 무사히 이루어지기를 기원함.
¹⁰ 하야시(囃子) : 일본 각종 예능에서 연기, 무용, 가창의 반주를 위해, 또는 분위기를 내기 위해서 악기나 사람목소리로 연주하는 음악
¹¹ 나고시노마츠리(夏越祭) : 1월~6월까지 반년간의 재앙과 액운을 없애고 이번 여름을 건강하게 보내기 위해 기념하는 마츠리

③ 疫病退散、町衆の思い

869年、都に疫病が流行した時、朝廷は「疫病は怨霊の仕業」と恐れ、これを鎮めるために大内裏の南にあった神泉苑の池のほとりで御霊会を行いました。この時、洛中の男児が祇園社八坂神社から神泉苑まで三基の神輿を送り出して、当時の国の数と同じ六十六体の銚を立てて疫病退散を祈願したのが祇園祭の始まりとされています。その後、応仁の乱や、江戸時代の三度の大火などの災害に見舞われたものの、そのたびに再建されてきました。太平洋戦争でも中断しましたが、昭和22、23年に変則ながら再開し、27年には戦前のままの巡行が復活しました。昭和30年代からは交通事情などの問題から、巡行経路や、前祭と後祭の合同巡行等への変更もありましたが、平成26年、49年ぶりに後祭が復活しました。

④ 전염병 퇴치, 마을 사람들의 생각

869년, 도읍지에 전염병이 유행했을 때, 조정은 “전염병은 원령의 짓”이라고 여겨 두려워하며 이것을 진정시키기 위해 다이다이리¹²의 남쪽에 있던 신센엔(神泉苑)의 연못 근처에서 원령을 위로하기 위한 제사를 지냈습니다. 이 때, 도성 안에 있던 남자아가 기온사야사카 신사에서 신센엔까지 3기의 미코시를 꺼내서 당시 국가의 수와 같은 66대의 창을 세워 전염병 퇴치를 기원했던 것이 기온마츠리의 시작이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 후, 오오닌의 란이나 에도시대 3번의 큰 화재 등의 재해가 닥쳤지만 그 때마다 재건되어왔습니다. 태평양전쟁에서도 중단되었지만 쇼와 22, 23년에 규칙을 바꾸면서 재개되었고, 27년에는 전쟁 전과 같이 순행이 부활했습니다. 쇼와 30년대부터는 교통사정 등의 문제로 순행경로나 전제와 후제의 합동순행 등으로의 변경도 있었지만, 헤이세이 26년, 49년만에 후제가 부활했습니다.

¹² 다이다이리(大内裏) : 옛날 헤이조쿄, 헤이안쿄의 대궐구역

④ 動く美術館と言われる山鉾巡行

祇園祭を豪華絢爛に彩る山鉾は、鉾、山、傘鉾に大別されます。鉾は疫病の依代となる真木を中心に屋形を組み、それに車をつけて曳く形態です。傘鉾は大きな傘の上に作り物や松を飾った風流傘です。山は「曳山」と「昇山」に分けられます。曳山は鉾の真木が真松に変わるだけで、ほかは鉾と同じです。昇山は、神話や故事、伝説などの一場面を表現した、言わば移動する演劇舞台です。白楽天山は昇山ですが、白楽天の真松は、祇園祭の山の中で最も高く、地上からの高さは7メートル以上あります。

山鉾を飾る世界の貴重な染織品の多くは懸装品と呼ばれ、今から数百年前の江戸時代に海外から日本に入ってきたもので、豪華絢爛な一級の美術品です。そのため、祇園祭には「動く美術館」という別名もあります。白楽天山を飾るの中心のタペストリーは16世紀ベルギー製で「イーリアス」の中のトロイア陥落の1場面を表しています。胴懸、水引及び見送はフランスから購入したタペストリーです。

⑤ 움직이는 미술관이라고 불리는 야마보코순행
기온마츠리를 호화찬란하게 장식하는 야마보코는 호코, 야마, 카사보코로 크게 나뉩니다. 호코는 전염병의 요리시로¹³가 되는 신기(真木)를 중심으로 임시거처를 만들고 그것에 차를 붙여서 끄는 형태입니다. 카사보코는 큰 우산 위에 장식품이나 소나무를 꾸민 풍류우산입니다. 야마는 「히키야마」랑 「카키야마」로 나뉩니다. 히키야마는 호코의 신기(真木)가 신마츠(真松)로 바뀔 뿐, 나머지는 호코랑 같습니다. 히키야마는 신화나 고사, 전설등의 한 장면을 표현한 이른바 이동하는 연극 무대입니다. 하쿠라쿠텐야마는 히키야마이지만, 하쿠라쿠텐의 신마츠는 기온마츠리의 야마 중에서도 가장 높고 지상으로부터 7미터 이상의 높이에 달합니다.

야마보코를 장식하는 세계의 귀중한 염직품의 대부분은 케소힌(懸装品)이라고 불리며, 지금부터 수백년전 에도시대 때, 해외에서 일본에 들어온 것으로, 호화찬란한 일등급 미술품입니다. 이로 인해 기온마츠리에는 「움직이는 미술관」이라는 별명도

¹³ 요리시로 (依代) : 신령이 나타날 때 매체가 되는 것

있습니다. 하쿠라쿠텐야마를 장식하는 전현(前懸^{まえかけ})의 중심의 태피스트리¹⁴는 16세기 벨기에제로 「일리아스¹⁵」의 트로이함락의 한 장면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동현(胴懸^{どうかけ})¹⁶, 미즈히키¹⁷, 미오쿠리¹⁸는 프랑스에서 구입한 태피스트리입니다.

⑤ ちまきに注目^{ちゅう}

笹の葉^{ささ}で作^はられた疫病・災難^{えきびょう}除^{さい}けのお守^{まも}りであるちまきは、詩人^{しじん}白樂天^{はくらくてん}と道林禪師^{どうりんぜんじ}の間答^{もんどう}に因^{ちな}み、学問^{がくもん}成^{じょう}就^{じゆ}、招福除災^{しょうふくじよさい}の護符^{ごふ}がつけられています。

⑤ 치마키에 주목

작은 대나무 잎으로 지어진 전염병, 재난퇴치의 오마모리인 치마키는 시인 하쿠라쿠텐과 도림선사의 문답과 연관된 학문성취, 소복제재¹⁹의 부적이 붙어 있습니다.

¹⁴ 태피스트리 (タペストリー) : 색색의 실로 수놓은 벽걸이나 실내 장식용 비단

¹⁵ 일리아스 (イーリアス) : 호메로스에 의해 지어졌다고 전해지는 장편 서사시, 트로이목마로 유명

¹⁶ 동현(胴懸): 「農民^{のうみん}의食^{しょく}事^じ(농민의 식사)」 고블랭(프랑스식물의 일종), 18세기

프랑스제/ 「女^{おんな}狩^{かり}人^{りゆうど}(여자사냥꾼)」 고블랭, 18세기 벨기에제

¹⁷ 미즈히키 (水引) : 가는 지노(종이를 비벼 꼬아서 만든 끈) 여러 개를 합쳐 풀을 먹여 굳히고, 중앙에서 색을 갈라 염색한 끈

¹⁸미오쿠리 (見送) :야마의 뒷면/ 「北^ぺ京^{きん}万^{まん}寿^{じゆ} 図^ず(북경만수도)」 모직물, 야마가세이카(山

鹿^{みずべ}清^べ華^{かい})작, 1953년 일본제/ 「水^{みづ} 辺^べの会^{かい} 話^わ(물가의 회화)」 모직물 18세기 프랑스제

¹⁹ 소복제재 (招福除災) :복을 가져오고 재난을 제거함